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제 9 회 경기도농업기술원 2017. 9. 4.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고추역병·탄저병, 담배나방, 미국선녀벌레, 과수 응애류, 진딧물, 노린재류,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에 대한 「주의보」를 벼 세균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도열병, 멸구류, 벼애나방, 콩노린재류, 총채벌레류,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포도 갈색무늬병, 사과 겹무늬씩음병에 대한 「예보」를 발표하니 재배관리 및 적기방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요령

◆ 과수 응애류, 진딧물 [주의보]

- ▶ 응애류, 진딧물이 배, 사과원 등을 중심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되면서 일부 방제가 소홀한 포장에서 밀도가 계속 증가하여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약제를 바꿔가면서 방제

◆ 과수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주의보]

- ▶ 배, 사과 등 과원과 기주식물까지 예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즉시 신고

◆ 미국선녀벌레 [주의보]

- ▶ 돌발해충이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농경지 및 농경지 인근을 함께 집중 방제

◆ 콩 노린재류 [예보]

-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의 성충에 의한 콩 꼬투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서둘러 방제

이 정보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031-229-5903)이나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주세요.

식량작물

1. 벼 세균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도열병 [예보]

- 세균벼알마름병은 출수기에 2일이상 연속강우와 고온지속시 많이 발생하므로 일기예보 등을 참고하여 출수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삭패기 직전에 전용약제를 선택하여 이삭도열병과 동시방제
- 잎집무늬마름병은 지속적 강우로 습도가 높아 병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 중만생종을 재배하고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는 발생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9월 상순까지 추가 방제
- 깨씨무늬병은 노후화답 등 땅심이 낮은 논에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전년 보다 발생면적이 증가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 병무늬가 보이는 논은 이삭도열병이나 세균벼알마름병과 동시방제



<세균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 출수기 이후 잦은 강우가 있을 시 이삭도열병이 우려되니 잎도열병이 발생하였거나 거름기가 많은 논, 사전방제를 하지 못한 논은 서둘러서 적용농약을 선택하여 방제

<적용약제>

- 잎집무늬마름병 : 신호탄, 삼각편대, 휘파람, 오후라, 플세트, 공중전
- 깨씨무늬병 : 공중전, 일석삼조, 필리아, 들판, 신호탄 골드미, 항공스타, 벼천왕
- 이삭도열병 : 디모스, 균지기, 신호탄, 울크린, 키타진, 후치왕, 공중전
- 세균벼알마름병 : 논카바, 공중전, 누비라, 헤드웨이, 루틴, 신호탄, 울크린, 항공스타

2. 멸구류, 벼애나방, 줄점팔랑나비, 콩 노린재류 [예보]

- 벼멸구, 흰등멸구가 중국에서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기압골 통과시 날아올 것으로 예상. 또한 중국 내 벼멸구 총태가 7월 20일 경 대부분 단시형 성충이어서 후세대가 8월 상·중순경 기류를 타고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찰 필요



<벼멸구>

- 비래 상습지 등에서는 비가 온 후 논에 들어가 벼대 밑을 살펴보아 벼멸구 등이 발견되면 적용방제로 방제



<벼애나방>

- 벼애나방, 줄점팔랑나비 유충은 잎을 가장자리부터 통째로 갉아먹어 피해를 주며 발생초기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

- 콩 노린재류는 7월 중·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콩 포장으로 날아와 증식하여 1회 성충과 약충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9월 상순경에 2차 방제 필요함. 오전 또는 해질 무렵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약효는 10일정도 지속됨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

<적용약제>

- 멸구류 : 신나고, 메리트, 플래넘, 적중, 바로확 등
- 노린재류 : 세베로, 청실홍실, 프라우스, 타스타, 세시미, 아타라, 스미치온, 메프치온, 명타자, 빅카드 등
- 벼애나방, 줄점팔랑나비 : 바로확, 올인원, 열풍, 빅애니, 프레바톤 벨스모 등

원예작물

1. 고추 역병·탄저병, 담배나방 [주의보]

□ 고추 역병은 연작지나 낮은 두둑 포장에서 발생이 우려되며 고추 탄저병도 장마로 인해 발생에 알맞은 기상환경이 지속되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역병은 배수로 정비를 잘한 후 병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제하고 탄저병은 비오기 전후 약액이 과실(고추)까지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하여 방제



< 고추탄저병 >

□ 고추 담배나방은 봄철 고온 등에 의해 예년보다 일찍 발생하였고 역병이나 탄저병 방제시 담배나방약을 혼용하여 동시 방제

<적용약제>

- 역 병 : 포룸만, 쿠퍼, 코사이드, 젬프로, 캐스팅·카브리옴, 경탄, 벨리스플러스, 경탄, 커튼, 미리카트, 명작, 골든키 등
- 탄저병 : 카브리오에이, 탄탄, 후론사이드, 에이플, 듄지칸, 참조네, 오티바옵티 등
- 담배나방 : 프로큐어, 하나로, 당찬, 암메이트, 알타코아, 바로확, 후려니 등

2. 채소 진딧물, 총채벌레류(바이러스병) [예보]

□ 진딧물, 꽃노랑총채벌레 등은 고온건조한 날이 지속되어 발생이 늘어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CMV) 등 바이러스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진딧물은 새순, 꽃노랑총채벌레는 꽃 중심으로 살펴보아 발생초기에 방제하되 계속 발생될 때는 성분이 다른 농약으로 바꿔 2~3회 방제



< 꽃노랑총채벌레 >

3. 미국선녀벌레 [주의보],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예보]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최근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 해충은 작물의 잎이나 줄기를 흡즙하여 생육을 불량하게 하고, 배설물(감로)은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림
-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이 6월말부터 급격하게 발생이 증가하였고, 40~50%정도 성충이 되어 피해를 주고 있음
- 미국선녀벌레는 전년에 경기도 대부분의 농경지 및 인근 산림, 공원 등에서 발생하였는데, 예찰을 통해 발견시 합동 방제
- 갈색날개매미충은 금년 돌발해충 월동란 조사결과 점차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월동란 발생지역 중심으로 미국선녀벌레와 동시방제
- 꽃매미는 주로 포도과원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발견시 적용약제로 함께 방제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적용약제>

- 미국선녀벌레 : 리무진, 오신, 보스, 팬텀, 청실홍실, 길라잡이, 검객, 트랜스폼, 스트레이트, 모벤토스 마트, 모스피란, 히든키, 천하평정, 귀공자, 힘센, 만장일치, 비상탄, 코니도, 빅카드, 아라치, 아타라, 칼립소 등
- 갈색날개매미충 : 리무진, 오신, 보스, 팬텀, 청실홍실, 트랜스폼, 모스피란, 천하평정, 직격탄, 만장일치, 충도사, 젠토시대, 피리쳐, 델타포스, 세베로, 쏘라원 등
- 꽃매미 : 리무진, 오신, 팬텀, 검객, 트랜스폼, 스트레이트, 모스피란, 세베로, 코니도, 빅카드, 똑소리, 아라치, 아타라, 덩동댕, 큐티클, 칼립소 등

4. 과수 응애류, 진딧물, 노린재류 [주의보]

- 응애류는 배, 사과원 등을 중심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되면서 일부 방제가 소홀한 포장에서 밀도가 계속 증가하여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잎을 관찰하여 발견 시 즉시 방제
- 과수의 진딧물은 올해 5월 상순경부터 나타났는데, 전년보다 진딧물 밀도가 높아져 방제가 소홀한 과원은 신초 위조, 그을음 등 피해가 보이고 있으므로 어린가지를 잘 살펴 적용약제로 방제
-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등 사과 흡즙 주요 노린재류는 성충으로 월동하다가 4~5월부터 발생을 시작해 7~8월에 사과 과실에 집중적으로 가해하므로 나방류 등과 동시 방제

<적용약제>

- 응애류 : 당차라, 파윗샷골드, 밀베노크, 마스터프로, 버티맥, 다이토나, 노블레스, 쇼크, 가네마이트, 지존, 아크라마이트 등
- 진딧물 : 스트레이트, 모벤토, 정보스카이, 아타라, 다이토나, 세티스, 빅스톤, 팡파레
- 노린재류 : 조명탄, 타스타, 나도야, 스톤네트, 오신, 라이몬 등

5. 포도 갈색무늬병, 노균병, 사과 겹무늬씩음병 [예보]

- 포도 갈색무늬병, 노균병은 비가 자주 내리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이 많은데, 잎과 과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잎 뒷면까지 방제하되 가급적 비오기 전·후 중점방제
- 사과 겹무늬씩음병은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생육후기에 병징을 나타내는데 9월중순이후 다 발생하게 되며 비오기 전후에 적용약제로 방제



<포도 갈색무늬병>

<적용약제>

- 포도 갈색무늬병 : 금모리, 타이브랙, 실바코플러스, 그랑프리, 로티플, 질주 등
- 포도 노균병 : 포루밀, 래버스, 두루두루, 조르벡불씨, 훌렛, 미리카트, 인피니트 등
- 사과 겹무늬씩음병 : 콰지나, 일등탄, 만데스, 선두주자, 앰블런스, 다놀라, 우람 등

검역병예충

1. 사과·배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주의보]

- 화상병은 사과, 배, 비파, 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종(種)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임
- 주로 식물의 신초(새순)에 발생하지만, 잎, 가지, 줄기, 꽃 및 열매에 발생하여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죽게 되어 화상병(火傷病)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잎에서는 잎자루와 만나는 곳에서 검은색의 병반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엽맥을 따라 흘러내리듯이 발달하여 결국 잎이 검게 변해 말라 죽게 됨. 가지나 신초에서는 병반이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확산되며, 병세가 진전됨에 따라 신초나 가지가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며 흑색으로 변하여 말라 죽는데, 마치 동해(凍害)를 입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함
-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원을 청결히 관리하고, 농기계나, 농자재의 과원 출입시나 작업자들은 70% 알코올이나 판매용 락스를 20 배로 희석하여 수시로 소독
-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기존 발생시군이외에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화상병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예방 철저. 외관에 나타나는 증상이 화상병과 비슷한데 사과의 경우 잎과 잎자루 연결부분의 엽맥에서 검붉게 마르는 증상이 보이고 가지 끝이 휘어짐

☞ **과수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은 한번 나무에 발생하면 방제가 불가능하고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면 신속하게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정밀 진단 의뢰**



<배 화상병>



<사과 가지검은마름병>

기상 전망



수도권기상청 발표

- 기온 전망 : 1주에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2~4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강수량 전망 : 1~2주에는 평년보다 적겠으나, 3~4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악플예보

기 간	요 소	평균기온			평년 (mm)	강 수 량				
		평년 (°C)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1주 (09.04~09.10)	22.4	40	40	20	39.3	40	40	20		
2주 (09.11~09.17)	21.0	20	40	40	38.7	40	40	20		
3주 (09.18~09.24)	19.7	20	40	40	35.9	20	40	40		
4주 (09.25~10.01)	18.2	20	30	50	16.6	20	40	40		

주간별전망

1주 (09.04~09.10)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음. (주평균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주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2주 (09.11~09.17)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주평균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주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3주 (09.18~09.24)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주평균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주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4주 (09.25~10.01)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주평균기온) 평년보다 높겠음 (주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